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 요청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09

S-OIL MAGAZINE
SEPTEMBER 2019
VOL. 454

S-OIL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SEPTEM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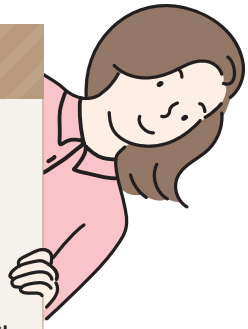
VOL.454

COVER STORY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 요청

칭찬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최고의 수단이다. 다만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어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칭찬과 비판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데일 카네기는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진심어린 칭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보완할 점을 지적할 때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 칭찬한 뒤 '그리고'라는 말 뒤로 개선사항을 언급해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변화하는 우리

04 핵심가치 히어로
[협력] 서형희 사우(항무방재과)

06 고전 속 핵심가치
[최고] 주일무적
흩어짐 없는 집중으로 최고에 이르다

08 달리는 희망 주유소
동북주유소

10 가족 추억공작소
김동현 사우(장치1과) 가족

12 달콤한 퇴근길
[등산] 정동진 사우(인천지사)

14 함께하는 풍경
• 바이크 동호회 동방1주유소 방문 사연

15 두런두런 이야기방
• 명절 나기 이야기
• 스위스 여행기
• 가족 전시·출간 이야기

08

10

12

20

24

함께 보는 세상

20 꽃청춘 수학여행
9박11일 낭만으로 달리는 남미
[쿠바 올드카 여행]

24 마을숲을 걷다
마을숲 보전
청정하고 건강한 생태계 연장선
[고창 심원면 화산마을 숲]

28 성장달力
아우름의 기술
[통솔력]

30 취미탐구생활
[시간투자형] 취미 정보

32 이달의 활력평가
9월 탐구영역 [추석]

34 캔버스 연구실
엑스선(X-ray) & 에두아르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성장의 S-OIL

36 우수 협력업체
- 포스코케미칼
- ㈜ABB코리아
- ㈜맥서브

39 주요 경영활동
- 사랑의 송편 나누기
-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 보육원 청소년 후원 장학금 전달

43 단신
- 우수제안 추가보상 제도 수상자 배출
- 울산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 동참
- 전사 경영설명회
- 본사 사옥 글판 교체
- 빈칸 채워 응모하는 신문제호광고 새 캠페인 시행

46 햇살나눔
- 멸종위기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어름치 방류

48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통권 제454호 **발행일** 2019년 9월 6일 **발행처** 에쓰-오일 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성환인쇄 02-2273-0583

공정의 시작과 끝

이상 無!

[Operational Excellence] 표창자

서형희 사우(항무방재과)

원유 하역의 시작, SPM 관리

해상계류시설(Single Point Mooring 이하 SPM)은 원유를 도입하는 첫 시설이자, 일반적으로 원유 저장 탱크에 이르기까지의 시설을 통칭한다.

"SPM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긴밀한 상호작업이 중요합니다. 선박 관련한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항무방재과 서형희 사우는 3.2㎞에 이르는 해저 송유관에서 육상 시설 바로 직전까지의 SPM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선박관리 업무 경력을 살려 2013년 입사 뒤 2014년부터 원유하역·해상방제 그리고 선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은 SPM 시설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다. 당시 SPM이 있었던 곳에 울산항 오일 허브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이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회사는 그해 7월에 이설을 완료했지만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안전 관리 업무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특히 작은 균열도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항무방재과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대내외 협력으로 신속히 대응책 마련

수면 위로 보이는 SPM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해저 배관까지 유동하는 두 개의 라인이 연결

협력의 기본은
신속한 정보 공유입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일의 성패를 가릅니다

주요 공적

- 현장 보고에 대한 발 빠른 출동으로 파이프 이상 가능성 조기 발견
-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상부 보고와 관련 부서 소집 등 후속 업무 동시 조율
-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한 대외 기관과의 협업으로 원유선 체선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재무적 성과 창출

돼 있으며, 설치된 수심은 해저 35m에 달한다. SPM은 현재 단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 24시간 정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서 사우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파이프 이상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한 2018년 10월 12일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직원이 특이점을 보고했고, 제가 바로 해상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저희가 해양오염 방재업무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곧장 하역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죠. 그리고 관련 부서와 함께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하역은 곧바로 중단됐다.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핵심 시설이기에 중단 기간과 재가동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 사우는 상부 보고와 관련 부서 소집 등을 통해 후속 업무를 조율해 나갔다.

원유 관련에서는 제품운영부, 생산조정팀, 원유용선팀, 수급운영팀 등과 협의했다. 또한, 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검사진단팀, 장치설계팀, 장치부 등 여러 부서와 힘을 모았다. 그 결과 해당 부위에 대한 영구조치를 20여 일 만에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

서 사우는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한 대외 기관과의 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뿐 아니라 울산건설출장소 실무진과 협업해 한국석유공사 소유의 SPM 시가동과 임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왔고, 원유 재고 확보에 힘을 보탰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18년에는 공정가동이 순항하고 원유선 체선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재무적 성과도 뒤따랐다.

공정 안정과 해양 안전을 지키는 자부심

현재까지 해양시설의 오염사고나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데는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대내외 부서 간 긴밀한 소통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서형희 사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한 몫을 했다. 그는 면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원유하역 작업에 기여하고, 해양시설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운영총괄상 표창자로 선정됐다.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후속 모든 공정에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2 SPM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한기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서 사우는 앞으로도 운전 설비를 잘 관리해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부서원 상호 간의 업무를 점검,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 간 협력으로 관리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협력의 기본은 신속한 정보 공유입니다. 그래야 관련 부서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협력이라고 할까요? 전폭적인 지지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아내, 출근길 모닝 뽀뽀를 선물하는 4살 아들, 이제 곧 11월이면 세상에 나올 둘째까지. 가족이라는 협력자들 덕분에 안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主一無適

주일무적

흩어짐 없는 집중으로 최고에 이르다

핵심가치
[최고] 편

집중의 관건은 포기와 선택

좋은 것을 보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 두 개가 좋아 보이면 둘 다 꼭 붙잡고 싶다. 그러나 인생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일이 많다. 인간의 능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모두를 취하려다 오히려 하나도 못 잡거나, 양쪽을 기웃거리다 둘 다 놓치기도 한다. 〈한비자(韓非子)〉 '공명(功名)'편에서는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둘 다 이루지 못한다(右手畫圓, 左手畫方, 不能兩成)"고 했다. 그 방면에 특출난 이가 아닌 이상 동시에 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 둘 다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잘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과감한 결단과 포기도 감수해야 한다.

〈대학(大學)〉에서는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마음이 엉뚱한 데 있으니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있으면서도 들리지 않는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마음을 오롯하게 한곳에 집중해야 목표를 불사를 수 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성취의 발판이 마련된다.

오직 한 곳을 향한 열망과 집념

조선 후기 유학자인 이현일은 〈조심잠(操心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잡아두려면 어찌해야 하나? 마음을 집중해 잃지 말아야 한다. 어찌하면 지극함에 이를 수 있나? 하나에 집중해 흩어짐이 없게 해야 한다(操之如何? 敬而毋失. 曷致其工? 主一無適)" 하나에 집중해 흩어짐이 없게 하는 것, 이를 일러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 한다. 주일(主一)은 하나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오직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 것이다. 무적(無適)의 적(適)은 '가다'라는 뜻이니 무적(無適)은 이리저리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이다. 곧 주일무적(主一無適)은 마음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 모든 정신을 쏟는 것이다. 조선 후기 문신인 포저 조익 선생은 〈무적명(無適銘)〉에서 "무적(無適) 두 글자는 마음을 꼭 붙드는 절묘한 처방이다. 천만 마디의 어떤 말도 이보다 타당한 것이 없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자나 깨나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라"고 말한다.

연암 박지원의 글에는 오롯하게 하나에 집중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중 조선 중기 유명한 화가 이징(李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가 흥미롭다. 이징은 그림 연습을 할 때 다락에 올라가 혼자 그림을 그렸다. 한번은 그림에 몰두하다가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림을 그리다 지치면 잠이 들고, 깨면 다시 그렸다. 자식이 실종됐다고 생각한 부모가 동네방네 자식을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야 찾았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징의 볼기짝을 힘껏 때렸다. 그러자 이징은 아파 울면서 떨어지는 눈물을 찍어 새를 그렸다고 한다.

조선 중기 최고의 명창 학산수(鶴山守)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른바 가수 지망생이던 시절 그는 노래 실력을 쌓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노래를 익혔다. 노래 한 곡을 마칠 때마다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그 모래가 나막신에 가득 차야만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 피나는 노래 연습을 한 끝에 그는 마침내 나라에서 제일가는 명창이 됐다. 길에서 만난 도둑떼조차 그의 노래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놓아줄 만큼 소리에서 만큼은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최고의 자리는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오롯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집념으로 성취할 수 있다. 어제와 내일은 붙잡을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 지금 해야 할 것에 오로지 몰두해 잘 해낸다면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에 집중한다면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되고 미래는 기대로 가득찰 것이다.

핵심가치 [최고]를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주일무적 흩어짐 없는 집중으로 최고에 이르다

主一無適

主一無適
主一無適
主一無適
主一無適
主一無適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등 저서가 있다.

열정의 정직한 결실

동북주유소

동북주유소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050
033-521-3661

반지혁 대표의 경영은 빈틈이 없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며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는 "지금껏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동북주유소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주의자 반지혁 대표의 운영 철칙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왼쪽부터
이복교 주유원, 오재영 주유원,
반지혁 대표, 노유민 주유원,
최승부 과장, 유호선 주유원

동북주유소 성공 전략 3

1 철저한 직원교육
첫째, 효율적인 업무방식 전달.
둘째,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셋째, 거래처 완벽 숙지. 세 가지를 중점으로 이뤄지는 직원 교육은 반지혁 대표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차질 없이 주유소가 가동되는 경영 키포인트다.

2 고객 및 직원 의견 적극 수렴
운영 방식, 서비스 개선, 가격정책에 이르기까지 반지혁 대표는 운영자와 주유원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요 조사를 거쳐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주유소를 만들어 왔다.

3 장기적인 계획주의
재건축 이후 거래처가 모두 끊기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반지혁 대표는 단기적인 가격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실행해나갔다. 8년이 지난 지금 매출 2배 향상을 이끌었다.

분신과도 같은 직원을 키우다

반지혁 대표는 동해시에 동북주유소, 묵호주유소, 해오름주유소 총 3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다. 그중 직영점인 동북주유소는 2016년 챔피언스클럽 우수상에 빛나는 곳으로 월등한 매출을 자랑한다. 반 대표가 혼자서도 세 주유소를 거뜬히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인력 관리'에 있다. 동북주유소 직원 5명을 포함, 총 13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워도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직원 교육에 철저하다.

"몸이 하나뿐이라 동시에 여러 곳을 돌볼 순 없지만, 주유원들을 잘 교육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반지혁 대표의 직원 교육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효율적인 업무방식 전달이다. 주유유도, 차량 동선 정리, 주유법 등 직무 노하우를 가르쳐주어 차량 순환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다. 반지혁 대표는 '어서오세요', '주유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등 기본적인 안내에만 충실해도 고객 만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 거래처 완벽 숙지다. 단골 고객의 얼굴, 특이점을 직원들에게도 숙지하도록 해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 이 모든 교육이 진행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화룡점정이다.

"사실 처음엔 주유원들이 제 교육 방식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로인해 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면서 점차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이제는 고객 만족도 개선을 비롯해 매출 분석, 가격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주유소 운영에 적극 참여주고 있어요."

급할수록 멀리 보는 법

동북주유소는 재건축한 지 8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마치 어제 지은 듯 새것처럼 깨끗하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주유소 구석구석을 쓸고 닦습니다. 대표님이 오시면 청결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거든요."

반지혁 대표가 유독 동북주유소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그의 사업가적 역량이 십분 발휘된 곳이기 때문이다.

"전체 고객의 70%를 화물차 고정고객이 차지했는데, 재건축에 6개월의 기간이 걸리면서 오랜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요. 완공 직후 매출은 바닥을 쳤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었습니다."

3년은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다음 3년은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히 실행에 옮겼다. 화물차 고객 영업에 발 벗고 나서며 충성도 높은 고객을 늘려나가고, 직원 교육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 힘썼다. 또한 직원들과 현장 분석, 고객 만족도 조사를 거쳐 시스템을 보완해나갔다. 그 결과, 수익 회복을 넘어 재건축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단순 가격정책에만 의존하는 건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주유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동북주유소는 앞으로 24시 운영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도 운전하는 화물차 고객의 거듭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수요조사와 2주 동안 시범 운영까지 끝낸 상태다.

"동북주유소는 앞으로 365일 24시간 고객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가족의 탄생

연인에서 부부로, 부부에서 부모로, 하나뿐인 아내에 이어 하나뿐인 딸이 생긴 김동현 사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그 어깨에 묵직한 책임감도 느낀다. 김동현 사우의 가족의 탄생,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동현 사우(장치1과)
가족

차곡차곡 모으는 성장사진

"하루하루가 이벤트 같아요."

김동현 사우와 아내 박효진 씨는 딸 유정 양을 품에 안고 말했다.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낸 지 3년 만에 찾아온 선물이다. 세상 빛을 처음 본 갓난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는 두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는 딸이 대견하다.

부부는 만삭 때부터 시작해 출산 뒤 50일, 100일, 200일에 스튜디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촬영에 일가견이 있는 아내 박효진 씨가 매달 직접 찍어 딸의 성장 모습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아기는 금세 훌쩍 자라잖아요. 럭키의 자라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 꾸준히 성장사진을 찍고 있어요. 오늘 촬영도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아기모델 가족 등판

시원한 하늘색 줄무늬 상의로 맞춰 입은 김동현 사우 가족이 카메라 앞에 섰다. 낯선 장소가 신기한지 주변을 돌아보는 유정 양의 동그란 눈이 더 커다래진다.

"자, 여기 보세요~"

사진가의 부름에도 유정 양이 그저 엄마 얼굴만 바라보자 박효진 씨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다. 조그만 입에 과자를 쏙 넣어주니 오물거리며 그제야 앞을 응시한다. 안심하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새하얀 배경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음 짓는 김동현 사우 부부는 길게 휘어지는 눈꼬리가 서로 닮았다. 엄마 무릎에 앉은 유정 양은 부부의 얼굴과 카메라 렌즈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사 같은 눈망울을 반짝인다.

그렇게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9개월 난 아기에게 그만 한계가 온 모양이다. 유정 양은 엄마에게 안기려 칭얼대더니 이내 울음을 터트린다. 김동현 사우 부부는 딸을 안아 달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훔친다. 엄마가 서둘러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자, 유정 양이 잠시 울음을 그쳤다.

"셋까지 셀게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셋'을 외치는 동시에 아내 박효진 씨가 유정 양의 손에 있던 장난감을 휙 낚아채 뒤로 숨긴다. 유정 양이 어리둥절해 하며 앞을 바라보는 사이, 김동현 사우 부부는 이때다 싶게 환한 미소로 능숙하게 포즈를 취한다. 역시 한두 번 촬영해본 솜씨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딸의 사진을 남겨온 두 사람의 노하우가 빛나는 순간이다.

사랑했고, 사랑하며, 사랑할게

"가정적이고 어른을 잘 공경하는 아내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김동현 사우는 우리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아내를 만나 5년이란 긴 연애 끝에 식을 올렸다. 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두 사람은 이제 셋이서 여행을 떠나는 꿈을 그린다.

"아내 체구가 작은 편이라 임신했을 때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건강하게 순산하고 육아까지 거뜬히 해내는 것을 보면 아내가 참 사랑스러워요."

아내 박효진 씨는 줄곧 김동현 사우에게 '슈퍼맨 같은 아빠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가 찾을 때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든든히 보호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동현 사우는 퇴근 뒤 평일 밤과 주말을 온전히 내어준다.

김동현 사우 부부가 딸에게 바라는 바는 거창하지 않다. 그저 밝고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인에서 부부, 부부에서 부모가 된 두 사람은 하나뿐인 딸과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을 약속한다.

행운처럼 찾아와 럭키(Lucky)라는 태명을 지어줬다는 김동현 사우 부부는 그렇게 행운을 소중한 행복으로 가꾸고 키워나간다.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서
언제나 든든히 곁을
지켜줄게

김동현 사우
아내 박효진 씨

마음 차오르는 발걸음

등산

글. 정동진(인천지사)
사진. 디자인소호

건강한 심신수련

9년 동안 산에 올랐다. 그 기간이 중요하진 않다. 다다른 곳이 높기만 한 것도 아니다. 언덕도 넘고 둘레도 걷는다. '도장 깨기' 식의 정복욕과는 거리가 멀다. 으레 주말이면 산을 향한다. 끊임없이 숲 자락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정상을 향하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다.

처음 산에 간 이유는 골프 때문이었다. 흔들림 없는 하체를 만드는 데 도움 되길 기대했다. 골프에 앞서 낚시, 웨이트트레이닝 등 이질적인 스포츠를 두루 경험한 가운데 등산은 왠지 만만했다. 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도 하다. 각별한 기분이 없었다. 지금은 산에 오르는 순간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

산행은 좋은 변화를 총체적으로 선물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정기검진 결과 수치다. 혈압, 혈당, 고지혈 등 중년 남자 누구나 염려할 법한 성인병 경계에서 해방됐다. 마음도 바뀐다. 중요한 기로에서 흙을 밟으며 곱씹으니 답이 보이고, 길이 험준할 때면 자연스럽게 지친 현실을 내려놓는다. 이 모든 작용은 얼굴색마저 환히 밝힌다. 동료들이 긍정의 변화 이유를 기분 좋게 물어와 알게 된 사실이다.

등산 정보상자

APP

루가(LUGA)
국내 모든 산이 총망라된 등산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교통편·소요시간·난이도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 코스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1천500개의 전국 걷기 좋은 코스 정보와 계절별 추천 명산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해 유용하다.

산길샘
등산 중 이동 행적을 남길 수 있다. 오프라인 지도 기능을 제공해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행인과 위치를 공유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위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도 중심 위치를 SMS로 전송해 긴급 구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건강한 신념이 굳어진다. 산에는 오직 내 숨과 발자국만 두고 온다는 철칙이 있다. 이런 가치에 부합하는 '클린(Clean) 산행' 캠페인을 동호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산에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수위의 실천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보이는 쓰레기를 줍거나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다. 관(官)과 연계해 산중 폐기물 관련 제보를 살피고 쓰레기 수거 목표로 산행을 기획한다. 땅 속에 묻힌 쓰레기를 파헤쳐 동호회원이 나눠지고 하산한 뒤 분리수거까지 마친다. 생각보다 양심을 파묻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캠페인 활동으로 알았다.

그렇더라도 가급적 많은 이가 산을 경험했으면 한다. 초심자는 트레킹부터 도전한다. 정부 차원의 조성사업 덕분에 걷기 좋은 길 천지다. '둘레길'을 열쇳말 삼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색도 손 쉽다. 취향과 산행의 접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라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만하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행복

내가 속한 동호회는 약 300명 규모로, 한 번에 약 30명이 모인다. 산마다 정상까지 다양한 경로가 있고 이 가운데 각자 맞는 코스를 택해 오르니 늘 만족스럽다. 한편 복장은 기본에서 출발한다. 등산용으로 판매하는 신발, 모자, 양말, 바지, 티셔츠 등과 가벼운 배낭 정도다. 이때 '지인 찬스'가 필요하다. 혼자서 일천한 정보로 아웃도어 물품 매장을 찾았다가 과소비하기 십상이다. 첨단 기능성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만큼 실제 등산하면서 효용이 불거지는 항목을 차차 갖춰 나가도 늦지 않다.

이제껏 굳이 셈하지 않았다. 애써 돌아보니 우리나라에 가보지 않은 산이 없다. 전국 12대 종주 코스를 포함한다. 딱히 어떤 목적 없이도 성실하게 산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산은 위안과 행복을 줬다. 함께 혹은 혼자 걸으며 어려운 일들을 사유해왔고, 환경을 귀히 여기는 지혜와 보람이 산에서 비롯됐다. 욕심으로 내딛은 걸음이라면 산에서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산행 없는 일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도 산에 관한 한 원대한 목표란 없다. 자연이 내가 다녀간 것을 알지 못하게 조용히 그 길을 걸어 오르고 싶다.

산은 위안과 행복을 줬다

함께 혹은 혼자 걸으며
어려운 일들을 사유해왔고

환경을 귀히 여기는 지혜와 보람이
산에서 비롯됐다

반가운 추억 한 컷

바이크 동호회 동방1주유소 방문 사연

글. 이상학(포항지사)

한여름 더위가 막바지에 다다른 8월 16일에 고객의소리(VOC)를 통해 기분 좋은 사연이 날아들었다. 대구에 거점을 둔 바이크 동호회원이 경북 경주시에 있는 우리 계열주유소, 동방1주유소를 방문했다가 멋진 한 장면을 촬영해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대구 바이크로 추억만들기' 동호회장 박수진 고객은 "동호회원들이 모여 투어를 떠날 때면 에쓰-오일만 주유한다"며 추억 여정의 짤막한 안부를 보내왔다. 회원이 4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막강한 동호회에서 꼭 우리 제품을 쓰신다니, 반갑고 또 반가웠다.

내수 고객 접점에서 우리회사를 대표해 일하다 보면 만만한 상황보다 어렵고 막막한 문제의 벽 앞에 설 때가 더 많다. 시장은 항상 격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속에서 고객과 상생의 길을 더듬더듬 찾아나가는 것이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힘을 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고객의 신뢰와 지지 덕분이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 커다란 가치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마지막까지 진솔하고 정직하게 고객 사랑에 부응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에쓰-오일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구 바이크로 추억만들기'라는 바이크
동호회의 리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한 장 보내봅니다.
430명 동호회원분들이 모여 투어를
떠날 때면 굳이 에쓰-오일을 찾아 주유하기를
선호한답니다. 어느 날 밤길 투어 중
경주시 초입에 에쓰-오일 주유소를 들러
주유 장면을 찍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동호회원분들이
에쓰-오일과 공유해 공감하자고 하시기에
사진을 보냅니다.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아닐뿐더러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진이 정말 예뻐서 공유합니다.
공감 나눠요~!

'대구 바이크로 추억만들기'
바이크 동호회장 박수진

고객의 편지

한가위 풍경

명절 나기 이야기

글. 구교영(동력4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즉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다. 조상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 햇곡식과 햇과일을 바치는 차례상도 올리고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전통 놀이를 즐기는 날이다. 물론 가족 구성원 누군가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힘든 추석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남녀노소 구성원이 두 팔을 걷어붙인다.

명절 연휴 3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아내의 지시에 따라 장을 봐오면 다음날 아침부터 차례음식을 마련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 한 뒤 자리를 잡고 앉아 작은 아들과 전이며, 꼬치, 생선 등 차례음식을 만든다. 아내는 본격적으로 손님맞이를 준비한다. 점심때쯤이면 서울에 있는 큰 동생 가족과 대구에 있는 작은 동생 가족 그리고 어머니가 오신다. 이때는 벌써 명절음식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가족 모두 둘러앉아 삼겹살과 소시지를 구워 먹으며 그간 안부를 주고받는다. 자식과 손자들의 수다와 웃음소리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면 모두 볼링이나 당구를 치러 외출한다. 지난 추석에는 6명씩 두 팀으로 나눠 시합했다. 환호와 한숨, 박수와 세리머니가 뒤엉킨 가족 경기를 즐기고 나면 우리 3형제가 어릴 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다.

이렇게 명절 전날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차례상을 올린 뒤 가족들과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명절을 마무리한다. 물론 설거지와 청소 등 뒤처리는 남녀 구분없이 적극 주도한다. 시대가 변한 만큼 명절 보내는 방법도 가족 구성원과 문화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기를 추천한다.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 덕담이 오고가는 명절연휴가 되길 소망한다.

청정 하늘 빛나는 별

스위스 여행기

글. 양동원(Alkylation2)

청정자연 속 피르스트 하이킹

공장근무를 하면서 새삼 일상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늘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됐다. 모처럼 떠나는 휴가지 역시 자연스레 청정자연을 최우선 요건으로 꼽게 됐다. 여러 후보지역 중 가장 마음이 끌린 곳은 작지만 작지 않은 나라, 스위스였다. 소득 수준 세계 최고, 국제기구본부가 위치한 중립국, 금융산업과 제조업, 제약업 등이 발달한 선진국 등 스위스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수식어를 꼽자면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6월 말 홀로 떠나는 여행이라 준비할 것도 비용도 생각보다 벅찼지만 비행기에 오른 순간 마음은 이미 스위스에 당도한 듯했다.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스위스 첫 풍경은 흐림이었다. 낯선 타지에서 한국인은 보이지 않고 언어 자신감마저 움츠러 들어 스마트폰만 의지한 채 숙소로 이동했다.

날씨처럼 흐린 마음으로 잠든 첫째 날이 지나고, 날이 밝자 비로소 스위스가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고 청명한 하늘은 푸른 자연과 조화를 이뤄 동화 속으로 빨려들어간 듯했다. 그 뒤로 여행하는 모든 곳마다 최상의 날씨가 이어졌다. 중세도시 느낌의 루체른과 한눈에 도시가 다 보이는 수도 베른, 알프스 산맥의 3대봉 중 하나인 융프라우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피르스트, 영화 007 시리즈 촬영지로 유명한 쉴트호른과

인기 사진촬영지인 뮈렌 통나무 등 매체로만 접하던 꿈같은 풍경들을 직접 거닐어보며 두 눈에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경치가 좋아 숙소로 많이 잡는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루넨, 인터라켄 등 어느 곳을 가든지 태양과 더위를 막아주는 적당한 구름이 여행길을 더욱 즐겁게 했다.

별처럼 가득 채운 마테호른의 추억

스위스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은 체르마트였다. 영화 시작 전 별들이 쪼르르 나와 봉우리에 동그랗게 떠 있는 영화사 로고, 바로 파라마운트에서 제작한 영화의 시작장면에 나오는 산이 체르마트에 있는 마터호른이다. 이곳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전기차만 다닐 수 있어 렌터카로 여행한다면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야 한다. 마테호른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산 중턱에 위치한 호텔에 짐만 두고, 밤을 새며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눈에 가득 담았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황금호른을 본 뒤 이곳에 다시 오기를 빌면서 행복한 꿈을 꿨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스위스 자연의 웅장함과 위엄에 감탄사를 내뱉는 매 순간에도 이곳 주민들은 그 자연 속에 동화돼 자연의 일부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스위스 시민과 정부의 노력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물가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는 이는 거의 없을 듯하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스위스 대자연이 주는 힐링은 무료한 일상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이 됐고, 돌아온 지금도 스위스 체르마트의 밤하늘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뻔하지 않은 FUN한 삶

가족 전시·출간 이야기

글. 최승필(화학생산본부 Safety Group)

아내에서 작가로

아내와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던 차였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서 아내는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두게 됐다. 스물두 살의 앳된 나이에 도전을 멈춰야 했던 아내가 안쓰러워 결혼 뒤에도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리라 다짐했다. 다행히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작가 이영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면서 아내는 울산대학교 동양화과에 진학했다. 그때가 2007년이다. 만학도 열정은 무서우리만치 뜨거웠다. 5년여 동안 하루에 족히 12시간 화폭과 마주앉았다. 석사 과정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아내의 첫 개인전은 대학 졸업 뒤 2011년에 열렸다. 석사 과정과 맞물린 전시였다. 학업을 이어가면서 치열하게 준비했다. 이때 아내는 화가로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라 했다. 이어 딸이 홍익대 회화 전공에 합격하면서 모녀가 같은 목표를 품었다. 합동전시다. 이것은 곧 실현됐다. 2016년 모녀의 전시 소식은 당시 지역 언론매체에 집중 보도됐다.

올여름에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 아내의 열한 번째 초대전이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에이치(H)에서 7월 20일~8월 16일 개최됐다. 아내 작품의 고유한 모티프는 '계단'이다. 꿈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르는 아내의 삶과 닮았다. 이제 작가 이영주는 내면으로 향하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린 것 같다. 아내 작품 속 계단을 살피는 이들이 저마다 꿈에 이르는 길을 떠올리길 기대한다.

꿈은 이뤄진다

이번 전시가 더 벅차고 뜻깊은 이유는 따로 있다. 아내의 첫 저서가 나온 것이다. 아내는 화가인 동시에 <나도 뻔(FUN)한 예술가로 살고 싶다>는 책의 저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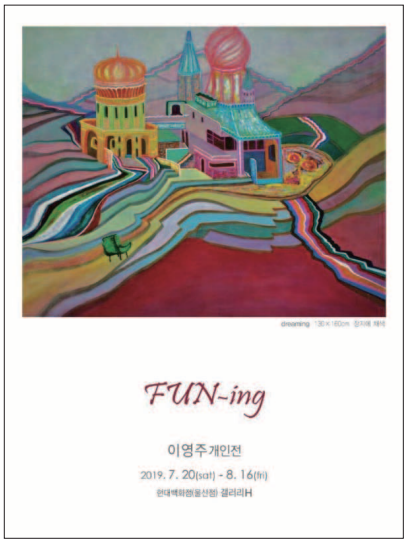
늦깎이 학생으로 앞만 보고 달린 아내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간간이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도 하고, 강의를 하고 싶다는 또 다른 열망에 마음이 괴롭기도 했다. 이때 아내는 지인이 우연히 권한 책을 읽고 감동했다. 그리고 미술에 발들인 본래 이유, '선생님이 되

고 싶다'는 꿈을 상기했다. 책은 강단에 서는 날을 꿈꾸는 아내에게 꼭 필요한 이정표다.

책에는 아내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겼다.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느끼는 행복 그 자체라는 것, 바쁜 현실에 쫓기지 말고 내 삶에 당당한 예술가가 되자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명화와 화가의 인생 이야기를 곁들여 공감대가 넓은 책이다. 특히 알기 쉽게 정리한 미술인문학이 지식을 더하고, 꿈을 이룬 다섯 명의 인터뷰가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지인들은 격려를 쏟아냈다.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책을 출간하니 멋지다',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등 응원이 이어졌다. 독자들의 호응에 아내는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면서 다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9월 28일 교보문고 울산점에서 독자와 만나고 10월 말에는 서울 명동 인터파크 북인샵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책으로 전할 수 있는 희망의 힘이 크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두 번째 저서도 준비한다. 한편 9월 말에 '아트팩토리'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미술인문학 강의와 더불어 '꿈은 꾸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아내는 24년 전 우리회사가 주최한 워크숍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때 초청된 전문가의 강의가 아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 강사는 "부부 각자 자신의 취향을 찾아 노력을 지속하면 먼 훗날 정년을 맞이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 말을 들으며 아내는 생각했다고 한다. '미술을 향해 꿈을 이뤄나가면서 나도 언젠가 멋진 강사로 남편 회사에서 강의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다. 지금 아내는 그 다짐 그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낭만으로 달리는 남미

쿠바 올드카 여행

글·사진. 김현각(<이지쿠바> 저자)

쿠바 여행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즐겼던 모히토를 마시고, 전설적인 쿠바 전통 그룹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앨범을 연주하는 재즈 클럽을 방문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엔 현지 생활을 경험하고 주민과 어울리는 개인 투어 상품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과 견줄 수 없는 고전적 매력이 있다. 바로 올드카다. 올드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쿠바여행을 소개한다.

1월 1박3일 홍콩 딤섬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슐랭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볼리비아 바리스타 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20시간

시차 한국보다 13시간 느림

화폐
쿡, CUC(약 1,200원) / 쿱 CUP(약 48원)
(두개의 통화가 사용되므로 환율에 유의)

교통수단
고속버스, 택시, 렌터카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쿠바트레블(쿠바관광포탈)
www.cuba.travel
▶ 인포뚜르(쿠바관광안내소)
www.infotur.cu
▶ 비아술(쿠바고속버스)
www.viazul.com

1

2

추천 Point

올드카 구경하기

쿠바를 누비고 있는 올드카 중에서 가장 멋들어진 차를 찾으려면, 라 아바나의 중앙공원 (빠르께 센뜨랄)로 간다. 미국과의 단교 이전에 수입된 59년식 이전의 미국 차량들. 구소련 시절 수입된 라다 등 올드카들이 줄을 지어 서있다. 오래된 차량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라면 지나칠 수 없는 곳. 중앙공원에 주차된 차량들은 대부분 시내와 지방도시를 이동하는 택시와 시내투어용 차량이다. 특히 매끈한 외관과 핑크, 빨강, 노랑 등 찬란한 도장을 자랑하며 시내를 누비는 무개차들은 쿠바 올드카의 대표이미지라 할 수 있겠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랜 세월동안 엔진이며 변속기며 시트며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부품들은 이미 구소련이나 중국 제품으로 모두 교체되어 아주 진지한 올드카 매니아라면 실망할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 요즘에 찾기 힘든 클래식한 유선형의 몸체는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는 손색없다.

올드카 사전체크

12월에서 2월을 제외하고 쿠바는 한국인에게 항상 더운 나라다. 단거리 이동은 큰 문제가 없지만, 타 도시로 이동할 때는 가격과 에어컨 유무 정도는 미리 확인한다. 차량의 상태와 거리에 따라 대략 120~150CUC(14만5천~18만 원) 정도 가격에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 수도 라 아바나에서 비냘레스나 뜨리니다드, 바라데로 등 인근도시로 이동할 때 흥정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차량 상태가 우수하지 않아 5시간 이상의 운행은 무리이므로 보통 3~4시간 정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식 Point

쿠바의 올드카

1959년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 미국은 자국과 쿠바 간 거래뿐 아니라 쿠바와 타국 간의 무역도 서서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차량수입은 제한되는 반면 수요는 변함이 없다 보니 오래된 차량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60년 가까이 지속됐다. 차량 소유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굴러만 가도록 고쳐 쓰며 견뎠고, 1995년 쿠바 관광개방 이후로 이제는 오히려 쿠바의 빼놓을 수 없는 관광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다.

올드카는 쿠바 여행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정작 믿을만한 예약시스템을 찾기란 힘들다. 예약이라 함은 그저 택시기사와의 보증 없는 약속이 대부분이다. 확실히 약속했다 자신해도 열에 한 번 정도는 택시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택시기사 전화번호 확인은 기본, 이동일 오전에 다시 확인한 뒤 오지 않을 경우 대안을 반드시 생각해둔다.

3

60년 전과 다름없이 거리를 누비고 있는 올드카 1
올드카는 외양뿐 아니라 감각 있게 도장된 색상으로 눈길을 사로 잡는다 2
라 아바나의 혁명광장을 지나는 무개차 3
나란히 서있는 비틀 3대 4
중앙공원에서 관광객을 기다리는 투어차량들. 화려한 올드카들이 모였다 5
말레꽁 해변을 지나면 쿠바만의 이색적인 풍광이 펼쳐진다 6
쁘라야 히론에 닿으면 방문할 수 있는 깔레따 부에나의 풍경 7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추천 일정

도시 간 이동 중에 올드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동 수단으로 올드카와 함께하는 여정을 고려한다.

DAY 1 캐나다 또는 멕시코 경유해 쿠바(라 아바나) IN
DAY 2 라 아바나 시내 관광(중앙공원의 올드카 투어 활용)
DAY 3 라 아바나 도보 관광(구시가지)
DAY 4 뜨리니다드 이동(올드카 이용)
DAY 5 앙꽁해변·시내 도보 관광(올드카로 해변 이동)
DAY 6 바라데로 올 인클루시브 호텔로 이동(올드카 이용)
DAY 7 호텔 내 휴식
DAY 8 호텔 체크아웃 뒤 라 아바나로 이동(올드카 이용)
DAY 9 쿠바 OUT

관광 Point

올드카로 떠나는 드라이브 코스

❶ **말레꽁** 쿠바의 수도 라 아바나에 있는 가장 멋들어진 해안도로 말레꽁은 쿠바 여행자들의 필수코스다.

❷ **쁘라야 라르가~쁘라야 히론 해변도로**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2차선 도로와 간간히 비치는 에메랄드 빛 바다는 쿠바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❸ **쁘라야 에라두라 해변도로** 라스 뚜나스 주에 자리 잡은 이 해변과 그로부터 연이어 자리 잡은 해수욕 포인트인 뿐따 또마떼, 라 랴니따 등은 각각 다른 얼굴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❹ **벨론~산띠아고 데 꾸바** 다소 위태롭고 구불구불한 이 길은 쿠바 동남쪽 가장 끝에 자리해 있다. 검은 모래사장에 검은 파도가 들이치는 풍경과 쿠바 시골마을의 정취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❺ **이슬라 데 후벤뚜드** 쿠바 서남쪽에 자리 잡은 섬 이슬라 데 후벤뚜드는 섬 크기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차량도 많지가 않아 드라이브에 그만이다.

올드카 예약하기(도시 이동할 때)

① 까사(민박숙소) 주인들은 대부분 올드카 택시기사 연락처 한두 개 정도 알고 있다. 묵고 있는 숙소 주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② 라 아바나에서 숙소 주인에게 답이 없다면 중앙공원으로 간다. 중고차판매장처럼 올드카가 빼곡하게 주차돼있다. 이곳에서 흥정이 시작된다.
③ 지방도시에서 도시 간 이동 올드카 택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이다.
④ 지나가다 보이는 올드카 기사에게도 일단 물어본다. 택시가 아니어도 수락할 확률이 높다.

마을숲 보전

청정하고 건강한 생태계 연장선

고창 심원면 화산마을 숲

글·사진. 전부순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지형이 마치 연꽃 같아 이름 지어진 연화(화산)마을은 1700년대 형성됐다. 선운산 뒷자락과 연화봉 주위에 자리했던 자연부락이 연화저수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수몰돼 지금은 화산마을만 남아있다. 연화봉에는 원불교 교조 소태산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정진했다는 초당터가 있어 원불교 성지로 각광받는다. 고창군 지정 '고인돌 질마재따라 100리길'이 마을 안을 지나고 마이재를 거쳐 선운산 주봉 도솔산과 선운사로 이어져 봄·가을이면 화산마을에 행락객들 발길이 넘친다.

후계림 조성으로 대대손손 청정림

전북 고창은 청동기시대의 부와 권위를 나타내는 거석문화 고인돌이 2천개 이상 밀집돼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을이다. 바다가 가깝고 고만고만한 산들이 줄지어있어 해풍을 막아주지만,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인위적으로 숲을 만들어 관리해왔다. 바로 마을 숲인데, 대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룬다. 풍수지리나 유교적 영향이 큰 마을에는 소나무 숲을, 반면 느티나무 숲은 토착신앙이 배경이 된 마을에 많았다. 또한 마을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은 경관을 간직하려고 마을 숲을 이루기도 했다.

마을 들머리나 냇가, 뒷동산 솔밭,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제례와 축제가 벌어지는 마을 숲은 마을의 역사·문화·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원초적인 향수를 자아내는 고향의 모습이자 마을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최소 생태단위다. 숲을 뜻하는 '수', '쑤', '림' 같은 접미사를 붙이거나, '수구막이', '성황림', '숲정이', '숲마당', '당숲' 등으로 불린다. 신라 때 함양 태수 최치원이 조성한 함양상림, 1648년 담양부사 성이성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에 만든 관방제림은 널리 알려진 마을 숲이다.

고창군 심원면 화산리 경수산(445m) 남서쪽 줄기에 자리한 화산마을은 남쪽과 동쪽은 선운산 줄기가, 서쪽에는 황학산 자락이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서 방향만 바다로 트여 있어 이곳으로 들어오는 북풍을 다스리지 못했다. 전하는 말로는 어느 날 선운사를 창건한 백제 승려 검단선사가 이 마을을 지나면서 지형을 살피던 중 북쪽이 뚫린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곳에 나무를 심어 바다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제를 지내면 후손이 번성할 것"이란 말에 따라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조들은 마을과 골짜기 사이에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해송 등을 심어 병풍처럼 숲을 두른 나머지 지금은 마을 북쪽에서부터 냇가를 따라 높이 10m, 둘레 2m 가량의 고목이 울창한 숲을 이뤄 위용을 뽐낸다. 주종은 목(木)자와 귀(鬼)자가 합해져 '괴(槐)'로 쓰는 느티나무다. 나무와 귀신이 함께 있다는 신목(神木) 즉, 귀목나무 혹은 훼나무로 불리고, 뿌리 퍼짐이 넓게 형성되어 체형도 단정하고 기품이 넘친다.

예전에는 이 일대가 모두 숲이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루고 새마을운동으로 사방 큰 나무들이 베어졌다. 여기에 도로개설과 하천제방공사로 개발되는 바람에 숲이 망가졌다는 것이 이 마을 어르신의 증언이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 남아 있는 숲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때 벌목되지 않은 작은 나무들이 지금껏 살아남았다는 설명이다. 마을사람들은 숲을 되살리기 위해 뒷산에서 지게로 흙을 퍼 담아 땅을 돋우면서 나무를 보살폈다. 나무들을 모두 당산나무로 여기고 섬긴 이유에서다. 마을에서 가까이 있는 팽나무는 나이가 가장 많고 둘레도 2m에 달한다. 당산나무가 예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액을 막아준다고 믿은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오후 8시부터 당산나무 아래에 술과 떡 등 음식을 거하게 차려 당제를 지내고 풍물굿을 치며 놀았다. 하지만 10여 년 전 이 전통은 사라졌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적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어 현재 귀농가구 포함 16가구는 각 가정 단위로 액막이 제를 지내는 것으로 맥을 이으며 공을 들인다.

10여 년 전부터는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화산마을 숲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뿌리 노출이 심한 곳은 복토작업을 하고, 썩은 동공부위는 외과수술을 하면서 고목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숲은 자연숲이 아닌 인공조림이라 반드시 후계림을 육성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다행히 각종 야생화와 후계목을 심어 마음의 고향으로서 포근한 숲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정 환경이 잘 보존된 덕에 붉은머리오목눈이,

1 마을 주민이 예전에는 풍물굿을 치며 후하게 당제를 모셨다는 세 그루의 당산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2 숲 북쪽으로 정자가 있고 그 뒤로 마을 선산을 잇는 무지개다리가 놓여 있다
3 마을 숲 보존은 누구나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4 조선 세종 32년(1450년)부터 단종 원년(1453년)까지 전라도 19개 군·현에서 구간별로 나눠 축성한 고창읍성
5 매년 중양절(음력 9월 9일)에는 모양성제가 열리며 이때 답성놀이도 재현한다

4

Travel Information

<심원면 화산마을 숲>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www.gochang.go.kr/culture

찌르레기, 청딱다구리, 진박새 등은 물론 황새, 원앙, 황조롱이 같은 귀한 새들도 많이 찾아와 동물 다양성이 풍부한 편이다. 이는 사람 출입이 잦은 마을 숲에서 생태계 연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양성 세 바퀴 돌아 극락 승천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 외침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 정신으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일명 모양성(牟陽城)으로 불리며 나주진관 입암산성과 연계돼 호남 내륙 방어의 전초기지다. 1965년 4월1일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이 성의 둘레는 1,684m. 높이 4~6m, 면적 165,858㎡(50,172평)로 동·서·북문과 옹성 3개 소, 치성(雉城) 6개 소를 비롯해 성 밖에 해자(垓字)를 두르는 등 전략적 요충시설을 두루 갖췄다.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병 없이 오래살고 극락문에 당도한다는 전설 때문에 매년 답성 행사가 계속된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 승천한다고 믿었다. 성 밟기는 저승문이 열리는 윤달, 특히 3월 윤달에 가장 효험 있고 그중 엿샛날에 저승 문이 열리므로 초엿새, 열엿새, 스무엿새 날에 답성 행렬이 절정을 이룬다. 천천히 돌아도 성 한 바퀴 도는 데 30~40분이면 족하다. 성을 돌때는 반드시 손바닥만 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세 번 돈 뒤에 일정한 곳에 돌을 쌓도록 했다. 특히 윤삼월 효험을 강조함은 겨우내 부풀었던 성을 굳게 다지기 위함이고, 머리에 돌을 이게 함은 체중을 늘려 성을 더욱 다지려는 의도였을 터다. 또한 머리에 이고 온 돌을 일정한 자리에 쌓아놓음은 유사시 석전에 대비한 전술이었다. 성곽을 돌다 보면 백성 동원을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재미있게 참여를 유도한 선조의 독특한 슬기를 엿볼 수 있다.

5

아우름의 기술

통솔력 기르기

글. 김용현(<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저자)

우리가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습은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경기 전체를 책임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감독은 선수 전원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단합을 시켜야 한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는 방향을 설정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면서 구성원들의 정서까지도 잘 살펴야 팀을 훌륭하게 통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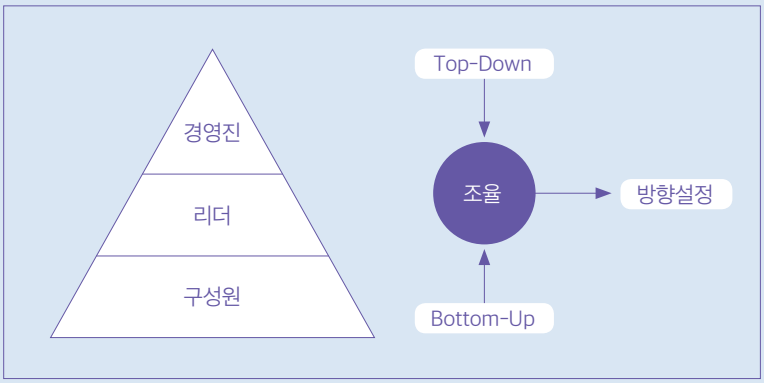
통솔력 훈련 1. 방향설정

조직이라는 배의 선장

조직 내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는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이다. 보통 1년 주기로 주요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개편이나 5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함께 고려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상위 조직 및 경영진 의사결정에 따른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이다. 이때 리더는 큰 방향(Big Picture)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뒤 구성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위로부터의 접근은 방향 설정의 일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른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접근이다. 조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조직의 추진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구성원들과 협의되지 않은 방향은 강력한 저항 또는 무관심과 맞닥뜨리게 된다. 설령 경영진의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간격을 좁히려 노력해야 한다.



통솔력 훈련 2. 팀워크

2보다 큰 1+1

조직의 성과는 일부 뛰어난 구성원의 역량보다 조직 전체의 팀워크에서 나온다. 팀워크가 굳게 다져진 조직이라면 개인의 공백은 물론 각 구성원의 역량 합계보다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팀워크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 번째, 구성원의 행동만 본다. 사적인 감정을 보태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비웃음과 비난 대신 포용하고 수용하는 환경에서 사람은 전력을 다하게 된다. 용기를 갖고 구성원이 능력과 아이디어를 발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업무적으로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확신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네 번째, 더 적극적인 모범을 보인다. 구성원이 해줬으면 하는 행동을 먼저 보이고 실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WLB)을 추구한다. 번아웃(Burn-Out) 되지 않도록 구성원의 업무 배분에 신경을 쓰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위한 리더의 행동

❶ 공과 사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인정
❷ 각자 맡은 일에 대해 의미 부여
❸ 균등한 업무 배분을 위해 노력
❹ 효율이 낮거나 쓸데없는 일을 끊임없이 개선
❺ 조직의 목표를 함께 공유
❻ 개선 아이디어를 주기적으로 토론

통솔력 훈련 3. 정서관리

조직 분위기가 성공 좌우

조직의 분위기는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나 몰입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자 개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당된다. 리더나 동료의 민감한 태도와 성급한 의사결정, 비합리적인 기대, 융통성 없는 관행 등이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사 문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리더가 이러한 정서적 요인을 구성원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면 결국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정서가 퍼지게 된다. 다음은 정서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팁이다.

첫 번째, 빈 회의실이나 산책 시간과 같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한다. 두 번째, 언제든 찾아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든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과격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장소를 이동하는 조치를 취하고, 발생 이유를 확인한다. 네 번째, 갈등의 원인과 해결법, 사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다섯 번째, 직원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올바르게 정서를 표현하는 '나 전달' 표현법(I message)

❶ 사실 ▷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❷ 영향 ▷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❸ 느낌 ▷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예시) 팀원이 반복적으로 지각한 상황	지난주에 주의를 줬는데, 이번 주에도 세 번 지각을 했군. (사실)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내가 난처한 상황이네. (영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운데. (느낌) 자네가 팀장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나?

[시간투자형] 취미 정보

느림의 힘

하루를 알차게 쪼개고 분류해 계획적으로 사는 방법도 좋지만 그저 시간을 여유롭게 흘려보내는 것도 바쁜 현대인에게 필요한 지혜다. 여백이 있어야 채울 수 있고 멈춤이 있어야 자신을 재정비할 수 있다. 시간을 좇기보다 그저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있다.

내면과 만나는 시간 · 심리상담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며 압박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상담센터를 찾는 이유다.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검증된 이론과 프로그램으로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신체기관의 문제로 심리적인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증상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따른 약물을 처방하는 정신과 치료와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심리상담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 치료한다. 대화를 통해 심리를 알아가고 불안과 고통의 원인을 함께 찾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어 외에도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미술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나뉘어 내 성향에 맞는 상담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플랫폼 정보

트로스트(Trost)
오프라인 상담소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사생활 보호가 강점인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이다. 최근 다수의 관공서·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우울증·가족·인간관계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해 전화나 문자, 화상채팅을 통해 익명으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숨고(soomgo)
'숨은 고수'의 줄임말로 한 분야의 전문가와 코치가 필요한 소비자를 매칭해주는 스마트 플랫폼이다. 경력이 검증된 전문 상담가와 소비자 매칭도 숨고의 특장점이다. 심리상담 선택지에서 해당 분야를 고르면 관련 전문 상담가들의 이력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한 획에 담긴 멋 ·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된 전문적인 손글씨 쓰기 기술로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일, 서체를 일컫는 말이다. 캘리그래피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주로 책 제목이나 포스터 디자인 정도로 여겨졌지만 특유의 감성과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그 활용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캘리그래피는 도구는 다양하다. 붓과 먹, 만년필, 색연필, 붓펜, 초크펜, 마커펜 등 저마다 느낌을 살려 무한 창작할 수 있다. 영어, 한자, 한글, 그림을 조합한 문자까지 언어의 폭도 다양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최근에는 캘리그래피 전문 학원이 급속도로 증가함은 물론 캘리그래피 작품을 공유하는 모임이 늘면서 남녀노소 여러 직업군의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더욱 손꼽힌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신만의 서체를 디자인으로 정식 등록시켜 저작권료를 받는 이들도 많다.

● 도움 되는 책

<이만하면 쓸만한 손글씨>
미술을 전공했지만 캘리그래피를 독학으로 공부한 저자가 펜 고르는 법부터 무엇을 쓰고, 어디에 써야할지 등 기초와 응용까지 입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나의 첫 영문 캘리그래피>
미국과 영국, 독일의 캘리그래피 부문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책으로 독창적인 영문 서체를 만들 수 있는 작가들의 노하우가 담겨있다.

수고의 정직한 보상 · 반려식물

시간과 비용, 노력 대비 반려동물보다 부담이 적은 반려식물이 적적함을 달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반려 식물을 키우는 1인 가구 어르신 330명을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식물을 기르며 얻는 기쁨과 보람, 정서적 안정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는 물론 무기력함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반려식물은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미세먼지 제거 효과 등 정서적인 기능과 실용적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어 도시인의 취미 활동으로 제격이다.

마리모, 페페로미아, 틸란드시아, 아이비, 호야, 스투키, 스킨답서스, 고무나무 등이 인기 반려식물로 최근 각광받는 품목이다. 비교적 기르기 손쉬울 뿐 아니라 공기정화와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다.

● 도움 되는 책

<반려식물 인테리어>

오랜 시간 가드닝을 하면서 배운 식물 키우기 노하우와 우리에게 익숙한 식물부터 최근 유행하는 반려식물 종류 등 정보를 전한다. 식물 이름의 기원, 활용도, 관리법 등 홈가드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 추천 반려식물

뱅갈고무나무 ▶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공기정화식물로 실내 오염물질인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아황산가스 등의 정화작용이 탁월하다.

필레아페페 ▶ 동글동글한 잎 모양으로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식물이다. 실내에 두면 재물운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어 개업이나 집들이 행사에 제격인 품목이다.

비움이 주는 채움 · 다도

다도는 차(茶)를 달여 손님에게 대접하고 마시는 예법이다. 음료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아닌 물을 끓이고, 잘 끓인 물에 차를 달여 마시거나 손님에게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또한 차를 마시기 위해 행하는 마음가짐까지도 통틀어 다도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차 문화의 시작은 삼국시대부터로 전해진다. 특히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은 다산초당에서 차를 재배할 만큼 차 사랑이 각별했다. 정약용 선생이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다도는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연속이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유를 즐기게 된다. 급한 마음을 달래줄 뿐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숨 쉴 틈을 준다. 멋과 기품은 물론 찻잎 종류별로 다양한 효능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삼조다.

● 도움 되는 책

<구구절절 차 이야기>

다도의 기본인 차에 대한 99가지 문답을 모은 책이다. 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과 효용, 효과적인 차 생활 노하우를 감성적인 삽화로 친절하게 소개한다.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9월 탐구영역 [추석]

<이달의 활력평가>는 달마다 시의성 있는 인문·생활 정보 기반의 퀴즈를 시험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쉬어가는 찰나에 재미와 여유를 더할 퀴즈로 소소한 활력을 충전해 보세요. 정답과 해설은 오른쪽 면에 공개됩니다.

♣ 건강 ♣

1. 아래 보기의 추석 대표 음식 중 칼로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송편 1개 · 갈비찜 1토막 · 산적꼬치 1개 · 약과 1개

① 약과>갈비>산적>송편 ② 갈비>송편>산적>약과
③ 송편>갈비>산적>약과 ④ 약과>송편>갈비>산적

2. 떡과 고기 등 덩어리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방법으로 [ ]이 있다. 환자를 뒤에서 양팔로 안아 시행하는 이 구조활동 명칭은?

① 심폐소생법 ② 하임리히법
③ 심장충격법 ④ 가슴압박법

♣ 정책 ♣

3.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휴 중 문을 연 약국,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 등 통합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서비스는?

① SOS ② e-medical ③ E-gen ④ 119

4. 명절 연휴 또는 주말 주차장 자리 찾기에 유용한 사이트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이것은?

① 정부24 ② 보건복지부
③ 도로교통공단 ④ 행정안전부

♣ 인문 ♣

5.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을 고르시오. (정답 두 개)

① 고사리 ② 마늘 ③ 삼치 ④ 도라지

김홍도의 <씨름>

6. 위 작품은 조선 초기 화가 단원 김홍도의 <씨름>이다. 추석을 대표하는 민속경기이기도 한 씨름은 2018년 11월, 사상 처음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남북 각자 등재했으나 공동으로 향유하고 전승해온 무형유산을 고르시오. (정답 두 개)

① 강강술래 ② 아리랑 ③ 김장 문화 ④ 농악

7. 절을 할 때 올바른 자세를 고르시오.

① 남자는 왼손 위, 여자는 오른손 위
② 남자는 오른손 위, 여자는 왼손 위
③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서기
④ 누워있는 어르신에게는 반절하기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정답·해설

1. *자료 : 강동경희대병원

① 약과>갈비>산적>송편

명절 음식 중에는 고지방·고열량 음식이 포함돼 있어 식단조절이 필요하다면 칼로리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기 음식들의 칼로리는 다음과 같다.

- **송편 1개** 50kcal
- **갈비찜 1토막** 100~140kcal
- **산적꼬치 1개** 100kcal
- **약과 1개** 150~160kcal

2.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②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으로 연령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성인은 뒤에서 안아 두 손을 명치 위에 포개어 주먹을 쥐고 위로 밀쳐 올리는 방식을 취하지만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뒤 등을 세게 두드리거나 가슴을 누르며 밀어주기를 반복한다.

3. *자료 : 보건복지부

③ E-gen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 서비스다. 홈페이지(www.e-gen.or.kr) 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 가능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두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

4. *자료 : 행정안전부

① 정부24

정부의 서비스·민원·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행정포털사이트다. 정부24(www.gov.kr) 접속 뒤 검색창에 '공공자원' 입력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지역 단위로 무료 주차장을 검색하면 된다.

5. *자료 : 지학사

② 마늘 ③ 삼치

차례상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올리지 않는 음식이 있다. 마늘, 팥, 고춧가루 마늘은 혼을 쫓는다고 여겨 제외시키며, 꽁치·갈치·삼치 등 과거 하등 생선으로 분류됐던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6.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② 아리랑 ③ 김장 문화

현재 인류무형유산은 한국 20개, 북한 3개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이상 2009)·가곡·대목장 매사냥(이상 2010)·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 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제주 해녀 문화(2016), 씨름(2018) 등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아리랑(2014)과 김장 문화(2015), 씨름(2018) 등을 보유하고 있다.

7. *자료 : 한국예절사협회

① 남자는 왼손 위, 여자는 오른손 위

절을 할 때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서며 손 동작은 남자는 왼손이 위,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어르신이 누워계신 상태에서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엑스선에 들킨 진심

엑스선(X-ray) & 에두아르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엑스선은 그림을 통해 화가의 마음을 투시하기도 한다. 현대 미술계에서 위작판별을 위해 시행하는 적외선과 방사능 촬영은 단층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적외선과 엑스선으로 촬영하면 색상표현은 안되지만 초록색(적외선)과 흑백(엑스선)의 음영과 농도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림의 안쪽에 덧칠된 상태나 밑그림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그림의 역사와 작가의 습성, 미술도구나 액자의 재질과 형태 분석을 통해 캔버스 사용 연대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초기 밑그림의 변화까지 감지해 작가의 심경의 변화까지도 추측할 수 있다.

열망과 집념으로 완성한 걸작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당분간 이 도시의 중요한 회화 컬렉션 하나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클 듯하다. 런던 스트랜드에 위치한 코톨드 갤러리가 2018년 가을부터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전면적인 개보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장 회화가 520여 점에 불과한 작은 갤러리지만 코톨드 갤러리는 런던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귀중한 컬렉션이다. 이 520점 안에 고흐의 <귀를 붕대로 맨 자화상>,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르누아르의 <관람석>, 고갱의 <두 번 다시는>,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등 인상파의 걸작들이 망라돼 있다. '코톨드'는 영국의 직물 상인이자 그림 수집가인 사뮤엘 코톨드의 이름이다. 개인적으로 인상파 작품들을 선호해 이들의 그림을 꾸준히 모았던 코톨드는 자신의 소장작을 중심으로 한 '코톨드 갤러리'를 1932년 런던에 열었다.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1882년·캔버스에 유채·130x96㎝·런던 코톨드 갤러리

<암굴의 성모>
1483~1486년경·캔버스에 유채·199x122㎝·
파리 루브르 박물관·런던 내셔널 갤러리

코톨드 갤러리의 핵심 작품으로 꼽히는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는 에두아르 마네 최후의 걸작이다. 부르주아의 아들로 태어나 파리의 중상류층 문화에 익숙했던 마네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매독의 부작용으로 다리가 괴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이 즐겨 찾는 술집 폴리 베르제르를 무대로 한 마지막 그림을 그리려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바까지 걸어갈 수 없었다. 마네는 자신의 화실을 폴리 베르제르처럼 꾸미고, 바의 실제 여급이었던 쉬종을 모델로 이 그림을 간신히 완성했다. 그림이 완성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마네는 5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엑스선이 밝혀낸 화가의 속마음

최후의 대작이 된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 마네는 매혹적이고 퇴폐적인 파리의 카페와 그 속의 사람들 그리고 아름답지만 공허한 젊은 여자의 내면까지도 포착해낸다. 그림은 시끌벅적한 술집의 한 구석, 대리석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여급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몸매의 여급은 커다란 금빛 메달을 걸고 가슴에 코르사주를 꽂았다. 그녀 뒤에 대형 거울이 걸려 있어서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왼편 위쪽에 서커스 곡예사의 두 발이 매달려 있고 2층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서커스 장면을 보느라 여념이 없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휘황한 불빛,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잘 익은 오렌지, 고급스럽게 반들거리는 대리석 테이블 등 꽉 차 있는 공간의 면면은 무척이나 화려하다. 술집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보는 이의 귀에 금방이라도 들릴 듯 싶다.

대조적으로 이 그림의 가운데에 선 아름다운 여급 쉬종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이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독이 짙게 드리워졌다. 뒤편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쉬종 앞에 어떤 남자가 바짝 다가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마음에도 없는 자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 19세기 말 대도시 파리에서 매춘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 쉬종은 비스듬하게 오른편으로 몸을 기울인 뒷모습으로 거울에 비친다.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쉬종 앞에 선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도를 따져 보면 쉬종의 앞모습은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정면이 아니라 그림 오른편으로 몸을 돌린 모습이어야 한다. 30년 이상 그림을 그려 온 노련한 화가 마네가 설마 각도에서 이처럼 기초적인 실수를 했을까?

2000년이 돼서야 과학자들은 이 그림을 엑스선으로 투사해 그림 속에 숨겨진 마네의 스케치(밑그림)를 발견해 냈다. 이 밑그림에는 쉬종의 앞모습이 각도에 맞게 오른편으로 몸을 틀고 있다.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에 엑스선을 비추면 물감이 많이 칠해진 부분일수록 엑스선이 더 많이 산란되거나 반사되면서 어둡게 나타난다. 이를 이용하면 엑스선의 강도를 조절해 밑그림을 찾아낼 수 있다. 최근에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암굴의 성모> 엑스선 촬영을 통해 다빈치가 그렸던 밑그림이 최종 결과물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마네는 밑그림을 그릴 때까지 쉬종이 옆모습을 그리려고 의도하고 있었다. 그러다 막상 붓을 든 후 마음을 바꾸어 정면 얼굴을 그린 것이다. 아마도 화가는 쉬종의 황량하고 지친 표정을 통해 이 화려한 도시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고독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을 통해 마네는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도시 파리에, 그리고 스스로의 그림에도 이별을 고하고 있다. 경쾌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마네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자신의 벗들에게 작별인사를 건넨다. 마지막까지 그의 시선은 냉소적이기는 해도 일말의 따스함을 머금은 듯 보인다.

우리회사는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구매부문 선정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통해 혜택(benefit)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수 협력업체에는 인증서를 수여하며, 이들 명단을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System)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협력업체 인증에 이름을 올린 총 9개 기업을 연중 지면에 순차로 소개한다.

01

[공사·정비용역] 분야

포스코케미칼
POSCO Chemical

50여 년 축적된 기술 노하우로 안정가동 선제 점검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50여 년 동안 포항·광양제철소 내화물 제조·납품·시공 등을 수행하며 국내 최고의 내화물 전문 업체로 기업 성장사를 써왔다. 포스코그룹의 신성장부문 핵심계열사로서 석탄화학·탄소소재 산업에 진출한 이래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인 2차전지 음극재, 양극재, 침상코크스 등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최근 중질유분해시설(RFCC)의 내화물 보수 작업과 관련해 포스코케미칼과 2013년과 2016년 제1기 시설을 두고 협업한 데 이어 이달 9월에 정기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포스코케미칼은 제2기 시설 보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공정 안정가동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양사 협력은 공사 착수 전 선제적인 프로젝트 관리로부터 빛난다.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나 무수한 변수를 고려한 일정 관리뿐 아니라 세밀한 사전 회의로 소통의 기회와 실효를 확장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공정 간섭 사항의 교차 확인, 품질·환경 관리 방안에 대한 선제 점검 등 앞선 조치들은 양사가 무재해 사업장을 향해 더 큰 가치를 일궈낸 비결이다.

> 프로젝트 성공에 이은 우수 협력업체 인증 사례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 얻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 많은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에 기초한 공기 준수, 품질·안전 확보로 고객만족을 실현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신상종 리더

6월	7월	8월	9월
[촉매·화공약품] 인우코퍼레이션 [기계·장치] 준코퍼레이션	[배관] 코리아인더스트리 [전기·계장] 지우시스텍	[실험기기] 와이앤유사이언스 [기타자재] 형지엘리트	[공사·정비용역] 포스코케미칼 [설계감리·공사관련용역] ABB코리아 [일반용역] 맥서브

02

[설계감리·공사관련용역]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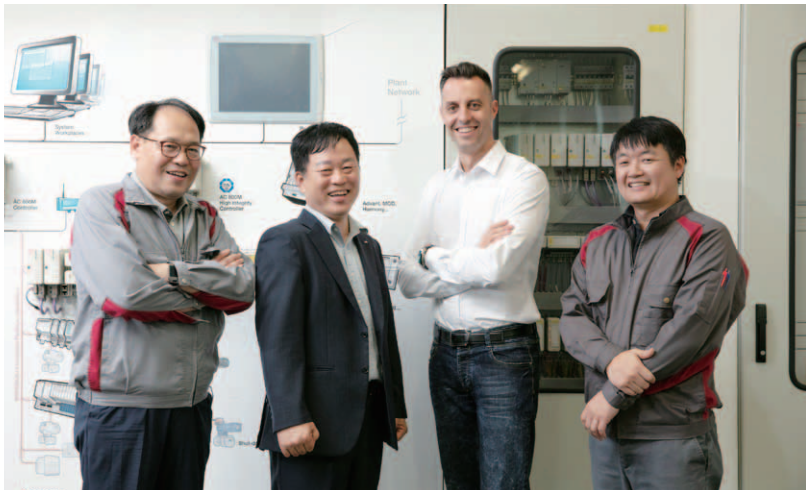
㈜ABB코리아

ABB Korea

산업자동화 첨단 시스템·솔루션으로 설비 운용 오차 제로

130년 기술혁신 역사를 토대로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ABB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그룹 설립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 주도의 근대화 사업에 다각도의 합작법인으로 참여해오던 기업 활동은 1988년 스웨덴의 아세아(Asea)사와 스위스 브라운 보베리(Brown Boveri)사의 본사 차원 합병에 따라 ABB코리아 설립으로 이어졌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SIEMENS)와 아울러 세계 3대 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그룹의 산업군 가운데 ABB코리아는 전기화, 자동화, 디지털화, 로봇공학 분야를 개척하며 전 세계 산업자동화 시스템·솔루션 시장을 이끌고 있다.

ABB코리아가 우리회사와 협력한 것은 1992년부터다. 3·4기 시설의 분산제어시스템(이하 DCS) 구축을 시작으로 우리 공장이 거듭 확충한 최첨단 자동화 제어 시스템의 궤적을 함께 그려왔다. 최근 2016~19년 사이 프로젝트 가운데 SUPER패키지 관련 DCS 용역과 개선·유지보수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장 설비 운용의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고 공정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산과 설계, 공사, 계전, 구매에 이르는 모든 접점에서 에쓰-오일 구성원이 보여준 진취적인 자세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설계와 계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각별하게 기억합니다. 최첨단 공장에 걸맞은 DCS의 최적 운용을 넘어 전기설비 분야, 나아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분야에서도 협력해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ABB코리아 임영무 이사

03

[일반용역] 분야

㈜맥서브
Maxerve

적재적소 필요 업무 제공으로 맞춤형 시설·설비관리

㈜맥서브는 1974년 설립 이래 45년여 동안 사업을 영위하며 성공적인 부동산 자산관리를 보좌해왔다. 시설·미화·보안·주차 등 서비스 최적화부터 기술에 기반한 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성장을 꾀한다. 축적된 노하우로 전국 470여 개 현장 관리 실적을 쌓아 동종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회사 사업장 관리에 조력하고 있다. 마포 본사 신사옥 준공 당시부터 관리에 협력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15년 공장 신본관의 시설물 관리 용역과 2016년 공장·사택 청소 등 일반용역, 2019년 마곡 기술개발센터(S-OIL TS&D Center) 건물 관리 용역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맥서브가 제공하는 용역 품질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만큼 양사 임직원의 화합이 협력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 이에 ㈜맥서브는 인적 자원이 함께 호흡하는 현장 속에서 고유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기적으로 소통해 문제해결에 빠르게 도달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에쓰-오일 공간 안에서는 소속에 관계없이 서로 따뜻하게 교감합니다. 멀리서 먼저 인사를 건네며 다가오는 모습, 업무 과정에서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모습 등을 접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의욕을 얻곤 합니다. 그 성원을 자부심 삼아 분명한 차별점을 보유한 시설 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맥서브 이찬욱 차장

두 손 가득 소담한 정

사랑의 송편 나누기

둥근 달 아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회사가 이웃을 위한 송편 빚기 행사를 열었다. 9월 4일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한 '사랑의 송편 나누기' 현장에서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임직원 100여 명은 손수 빚은 송편에 선물 꾸러미를 더해 800세대 이웃에게 전달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는 서울 마포구 일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장애인·독거노인 등 가정의 명절 나기를 고려해 우리 봉사단이 직접 포장한 것이다.

하세인(廈世絪)이라는 한국 이름을 짓고 우리 이웃과 만난 알 카타니 CEO는 부임 뒤 처음으로 큰 명절을 맞이한 소회를 밝혔다. "한국 이름 하세인은 큰 집에서 넘치는 기운으로 복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에쓰-오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와 함께 복을 나누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알 카타니 CEO는 이웃 가정에 직접 선물 꾸러미를 전하며 "사람들이 내면에 지닌 선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에쓰-오일 또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회사는 2007년부터 13년째 큰 명절마다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활동을 지속해왔다. 설에는 떡국 나눔을, 추석에는 송편 나눔을 통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마음에 새긴 고귀한 유산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우리회사가 순직소방관 유자녀 70명에게 300만 원씩 총 2억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8월 28일 용산소방서(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류열 사장, 선진영 전무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과 정문호 소방청장, 최일섭 한국사회복지협의회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 학생을 포함한 순직소방관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키며 전달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용기를 항상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바란다"며 "그 마음을 원동력 삼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순직소방관 유자녀와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로 동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순직소방관 유자녀 장학금 전달 사업을 지속해 왔다. 소방관 자녀들이 부모의 고귀한 희생 속에 슬픔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까지 14년째 가동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1천259명 학생들에게 36억여 원이 지원됐다. 수혜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되며, 이는 소방관의 청소년 가족이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순직소방관 유자녀 소감문

약속한 꿈을 이뤘습니다

박한나(대구교대·故 박근배 소방관 자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꿈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신 에쓰-오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방방재청 등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3년 5월 안동 임하댐 헬기 추락사고 수색 작업 중 순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본받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쓰-오일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함께 아픔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을 위한 험한 길을 걷고 계시는 모든 소방관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창민(부산대·故 신동부 소방관 자녀)

아버지께서 순직하신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학교 2학년 추석 연휴 전날, 이번 명절은 함께하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은 비보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아버지 동료들 포함해 주변의 도움으로 어두운 통로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학금을 받은 저와 동생에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니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서로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직하신 소방관들을 기억하며 유가족을 한결같이 지원해주는 에쓰-오일을 기억하겠습니다. 머지않아 학자금 지원이 큰 보람으로 값진 결실을 맺는 날 성공후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꿈꿉니다.

희망 품고 단단히 성장하겠습니다

이예린(서울시립대·故 이경호 소방관 자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소방관이셨던 아버지께서는 15년간 숭고한 직업정신으로 화재 현장과 위기 상황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신 누구보다 강인한 슈퍼맨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진단을 받은 뒤 2년간의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2008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 부재는 큰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들 때마다 에쓰-오일의 지원 덕분에 조금이나마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오빠 또한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재학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분들도 절망에 젖어있기보다 희망찬 목표를 향해 단단하게 성장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올곧은 꿈
따뜻한 응원

보육원 청소년 후원 장학금 전달

우리회사는 8월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보육시설인 선덕원에서 보육원 청소년의 학업·자립을 돕기 위한 '2019 S-OIL 드림(Dream)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135명에게 장학금과 선덕원 청소년들로 구성된 선덕합창단 후원금 등 총 3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S-OIL 드림장학금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85명에게 12억 원이 지원됐다.

이웃 돕는 삶을 꿈꿉니다

안수혜(대구폴리텍6대학 스마트전기과 2)

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특기생으로 운동만 하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실업팀에 가지 못하고 보육원을 퇴소해야만 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참여하게 된 퇴소 아동 인턴십 사업을 통해 처음 전기 관련 일을 배우며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절망적인 순간도 많았지만 에쓰-오일 드림장학금 덕분에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거비와 공과금, 교통비, 교재비 등을 해결하고 가족부양과 학업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4년제 대학 전기공학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외국 바이어들과 협약도 맺고 현재 다니고 있는 전기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생활이 더 안정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후배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며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꿈과 목표를 갖게 한 에쓰-오일에 감사함을 전하며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리라 약속합니다.

가치 있는 꿈을 이루겠습니다

신창민(대구 농업마이스터고 특작과 3)

고등학교 2학년 때 에쓰-오일 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으며 다양한 전공 관련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장학금을 자양분 삼아 내 자신의 가치를 키워나가야겠다고 매 순간 다짐했죠. 그 결과 올해 2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 7월에 조경기능사 합격, 이어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취득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수의 자격증 시험에 소요되는 응시료, 교통비 등을 해결하는 데 드림 장학금은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전문 농업기술을 학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원예과에 진학해 조경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진출해, 도전하는 젊은 농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S-OIL NEWS

우수제안 추가보상 제도 수상자 배출

우수제안 추가보상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수상자가 탄생했다. 지용희 사우(생산조정팀)가 우수제안 추가보상의 수혜자로서 수상의 보람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제안 실행자로서 박재형 사우(탈황1과)와 박승희 사우(탈황2과)가 보상을 받았다. 이들의 우수제안은 중질유탈황공정(RHDS) 운전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다. 시상식은 8월 6일 공장 신본관에서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수제안 추가보상 제도는 앞서 운영 중인 전사 제안제도에 기초한다. 기존 보상제도 외에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제안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길을 열었다. 우수제안의 사후평가로 산출된 실제 연간 유형효과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제안자에게 지급한다. 산출된 보상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은 1천만 원에 한하며, 제안자와 실행자가 다른 제안의 보상금은 각 7대3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제안 선정은 해마다 6월 말 기준으로 1회 시행되며, 시행 원년인 올해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행 완료·등록된 제안을 보상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알 카타니 CEO는 최대 추가보상 금액인 1천만 원을 제안자와 실행자에게 전하면서 “이번 제안은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전 직원이 제안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해 것을 당부했다.

울산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 동참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에 우리회사가 힘을 보탠다. 우리회사는 8월 14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십리대숲의 확대 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우리회사를 포함한 총 6개사다.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은 석남사~선바위와 명촌교에 이르는 40㎞(100리) 구간에 대나무를 식재해 숲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제별 공간을 조성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는 대나무 식재 공사 지원으로 백리대숲 조성에 뜻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사 경영설명회

주요 경영 정보를 기초로 한 직접적 소통으로 회사 현황과 성과,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는 전사 경영설명회가 8월 22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온산공장과 지역본부·지사, 저유소, 기술개발센터(S-OIL TS&D Center) 등 전 사업장 생중계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 상반기 경영 실적과 전망, 신규 프로젝트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다뤘다. 우리회사는 전사 경영설명회로 경영 목표와 현황을 공유해 비전2025 달성을 향한 공감대와 추진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첫 시행 이후로 6회째다.

본사 사옥 글판 교체

아름다운 시 한 구절과 계절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시민들과 공감을 나누는 마포 본사 사옥 글판이 새 옷을 입었다. 정연복 시인의 <가을 햇살> 한 구절에 가을 정취 가득한 단풍 이미지를 더했다. 이번 글판은 8월 말 교체 설치를 마치고 9월 첫날 시민들을 반겼다. 우리회사는 시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랜드마크로서 본사 사옥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본사 사옥에 글판을 운영하고 있다. 글판은 분기마다 교체된다.

빈칸 채워 응모하는 신문제호광고 새 캠페인 시행

차별화한 소통 채널로 신문제호광고를 활용하는 우리회사가 '채움 캠페인'을 새롭게 펼쳐 보이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종합 주요 일간지의 제호 옆에 위치하는 신문제호광고는 신문을 펼치는 독자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돌출 광고(side box ad)다. 이를 통해 우리회사는 창의성이 반짝이는 광고를 꾸준히 집행해 폭넓은 대국민 소통을 모색하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거둬왔다.

새로운 신문제호광고 채움 캠페인의 반가운 변화는 열린 참여 방식이다. 신문제호광고에 제시된 문구 가운데 빈칸을 채워 응모하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이다. 누구나 주체가 돼 친근하고 공감 가는 문구에 단어를 덧붙임으로써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일상을 화두로 '저마다 채워보고 싶은' 문구가 제시되는 가운데 참여자는 직접 빈칸을 채워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문구를 완성한다. 간단한 단어를 통한 손쉬운 응모 방법도 참여 동기에 불을 지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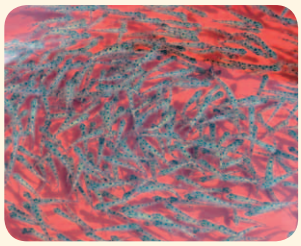
채움 캠페인의 새로운 소재는 11개 주요 일간지 신문제호광고 창에 매주 토요일 공개된다. S-OIL 홈페이지(www.s-oil.com) 내 마련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에 당첨자(10명)를 가려 모바일 주유상품권(5천 원권)을 지급한다. 캠페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금강 가르는 어름치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일환의 어름치 관련 교육·봉사가 8월 31일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진행됐다.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가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금산군 협조 속에 다락원 생명의집 강당에서 생태교육을 받은 뒤 금강 수계(금산군 제원면 낙안길)에서 어름치 치어 5천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우리회사는 2010년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와 어름치 보호 캠페인 협약을 맺고 토종 민물고기인 어름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어름치 서식지 보호 지역인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 어름치 치어 방류를 실시해오고 있다.

멸종위기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어름치 방류

글. 신영철(CRS/운영지원팀)



임직원과 가족이 꾸준히 동참하고 있는 이 활동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막바지 여름, 쾌청한 날씨 속에 충남 금산군의 금강 일대에서 어름치 방류 봉사활동이 시행됐다

임직원과 함께 따라나선 자녀들은 자연스러운 캠페인 활동으로 생태환경 수호를 배운다

2011년 착수한 어름치 치어 방류는 전북 무주, 강원도 홍천, 충북 옥천군 등
해마다 서식지를 바꿔 실시됐다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으로 그동안 자연으로 돌아간 어름치는 4만2천600여 마리이며,
총 2천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참했다

임직원 동정

2019년 정기 Job Rotation

09.16

공진현(2급.고객서비스팀)→특수제품영업팀

조준영(2급.소매관리팀)→브랜드마케팅팀

양승직(2급.영업전략팀)·노근현(4급.판매계획/분석팀)→소매관리팀

석영홍(2급.멤버십마케팅팀)→중부영업지원팀

류권성(2급.직영네트워크관리팀)→LPG팀

최영수(2급.직영네트워크관리팀)·서호경(2급.법인영업팀)→네트워크강화팀

최철웅(2급.네트워크강화팀)·조병호(3급.네트워크강화팀)→직영네트워크관리팀

한정욱(2급.대리점영업팀)→용인지사

형을진(2급.특수제품영업팀)→고객서비스팀

이재춘(2급.저유관리팀)→수송팀(본사)

신정국(2급.경영관리팀)→홍보팀

주정락(2급.변화혁신추진팀)→노사협력팀

정국진(2급.노사협력팀)→변화혁신추진팀

조창기(2급.부동산관리팀)→구매팀

박도영(2급.자금계획팀)·조대현(2급.신용관리팀)·주혜연(4급.회계팀)→리스크관리팀

김구현(2급.리스크관리팀)·김명헌(4급.CSR/운영지원팀)→신용관리팀

김영철(2급.감사2팀)→감사1팀

조성욱(2급.동부영업지원팀)→부산지사

조희선(2급.중부영업지원팀)→수원지사

송준용(2급.서부영업지원팀)·이창수(3급.아산지사)→대전지사

공부택(2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강남지사

윤종성(2급.강남지사)→법인영업팀

한승권(2급.대전지사)·김성복(2급.목포지사)→광주지사

이병관(2급.대전지사)·송현호(2급.광주지사)→전주지사

서부일(2급.광주지사)→목포지사

지강만(2급.아산지사)→서부영업지원팀

황희광(2급.대구지사)·박준규(2급.구미지사)→안동지사

황승봉(2급.부산지사)→진주지사

조응두(2급.창원지사)→울산지사

김정재(2급.포항지사)→동부영업지원팀

오대영(2급.울산지사)·정우철(3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창원지사

이성택(2급.진주지사)→동부네트워크관리팀

이대우(2급.안동지사)→포항지사

이영목(2급.안동지사)→대구지사

모완재(3급.영업전략팀)→판매계획/분석팀

정명하(3급.수송팀-본사)→저유관리팀

함상욱(3급.홍보팀)→광고팀

유동수(3급.신용관리팀)→부동산관리팀

김민철(3급.감사1팀)→감사2팀

윤석원(3급.남양주지사)→인천지사

조연환(3급.전주지사)→남양주지사

김인수(3급.전주지사)→청주지사

정정진(3급.청주지사)→대리점영업팀

김영학(3급.대구지사)→구미지사

김병현(3급.창원지사)→아산지사

김진원(2급.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2과장)·김승수(4급.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1과)·이형준(4급.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2과)→장치설계팀

배재준(4급.품질관리팀)→기술교육팀

정광운(5급.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2과)→계전설계팀

김경민(4급.소매관리팀)→영업전략팀

김태영(4급.브랜드마케팅팀)→대리점영업팀

송창영(4급.아로마틱영업팀)→신규사업팀

유진욱(4급.Olefin Downstream 사업기획팀)→PO & Intermediate 영업팀

이석범(4급.Polymer & Intermediate 운영팀)→Olefin Downstream 사업기획팀

이이슬(4급.Chemical기술개발기획팀)→아로마틱영업팀

SEPTEMBER
2019

S-OIL

김재영(4급.인사팀)→복리후생팀

이상훈(4급.복리후생팀)→인사팀

김태현(4급.총무팀)→CSR/운영지원팀

김혜수(4급.구매팀)→총무팀

이진주(4급.신규사업팀)→용도개발/기술지원팀

장성제(4급.신용관리팀)→관리회계팀

한제백(4급.대리점영업팀)→영업전략팀

최영근(5급.PO & Intermediate 사업팀)→Polymer & Intermediate 운영팀
주승민(5급.업무팀)→환경팀

11.01

임형준(3급.동경지사)→정유Heavy제품팀

심문보(4급.윤활운영팀)→동경지사

12.01

안정우(2급.경영기획팀)·장예라(4급.자금계획팀)→관리회계팀

정혜동(2급.관리회계팀)→경영기획팀

김신형(4급.관리회계팀)→자금계획팀

최상원(4급.IT운영팀)→생산IT지원팀

이민형(4급.생산IT지원팀)→IT운영팀

해외유학 파견 복귀

09.03 홍대성(2급.인력개발팀 부)→경영관리팀

입사

08.19 이상원(3급.프로젝트추진1팀)

정년퇴직

08.31 김원중(1급.중부지역본부장 보좌역)

퇴직

08.27 방성환(계장.품질관리팀)

09.01 윤정운(일반사무직2급.총무팀)

09.09 정광(운전원.FCC2부 FCC2과)

결혼

08.24 최영천(남양주지사) 딸

08.25 김정순(계기1과) 딸

09.07 정승필(FCC1과)

09.29 김경식(LPG팀) 딸

부음

08.05 김흥준(연구개발팀) 부친

08.08 김동수(감사1팀) 빙모

08.10 김영우(총무보안팀) 외조부

08.11 이재성(제품운영1과) 외조모

08.12 이현수(유황2과) 외조모

08.18 박기철(화학생산본부) 빙부

08.19 이강훈(수급운영팀) 부친

08.23 박정규(화학생산본부) 빙부

08.24 전용주(MHC과) 빙부
이영목(안동지사) 빙모

08.25 이민규(윤활생산1과) 부친

08.27 진하준(기계기술팀) 조모

08.28 이상현(환경운영과) 외조부

09.02 김민욱(정유3과) 조모
박현주(생산회계팀) 시모

09.03 정만영(정유1과) 빙모

09.04 강만희(구미지사) 모친

09.05 최동병(동력7과) 모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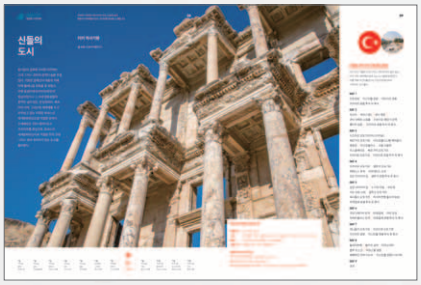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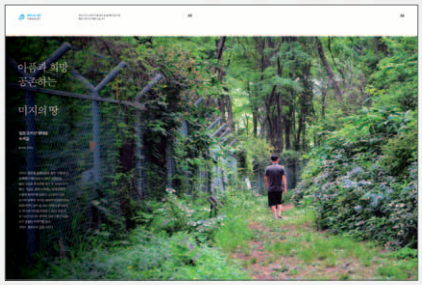
<함께하는 풍경> 태화루 건립 5주년 후원 공연 관람
에쓰-오일의 건립비 기부 소식을 접하고 아이들과 태화루를 찾았던 5년 전 추억이 떠오릅니다.
정미영(품질관리팀 양병훈 사우 가족)

<두런두런 이야기방> 대곡박물관 관람기
태화강 백 리 길을 주제로 한 박물관 관람 후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김진은(품질관리팀)

<두런두런 이야기방> 울릉도 가족 여행기
다음번에 우리 가족도 가보고 싶어요.
박채연(기계설계팀 박상욱 사우 가족)



<꽃청춘 수학여행> 터키 역사기행
아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행선지의 정보가 담겨 있어 좋았습니다.
이용문(동부네트워크관리팀)



<마을숲을 걷다> 철원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정말 좋은 곳이네요. 기사만으로도 힐링한 기분입니다.
구정서(남양에너지충전소.경남 사천시 사천대교로)

<이달의 활력평가> 8월 탐구영역 '한여름'
기사를 통해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강재성(좋은기름주유소.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캔버스 연구실>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명화를 감상하면서 화가에 관한 지식도 풍부하게 채울 수 있어 좋습니다.
강혜정(고객.울산시 남구 대공원로)

<주요 경영활동>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
어딜 가든 'S-OIL' 로고만 봐도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듭니다.
백설희(공정자동화팀 이승민 사우 가족)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추석에 조카들에게 준 용돈만
❶ 자그마치 ❷ 자그만치 50만 원이야.

02

이 친구도 왕년에
❶ 한가닥 ❷ 한가락 했지.

8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스피커
김미선(유황1과 김대기 사우 가족) • 김계록(품질관리팀) • 박동일(기계2과) • 임태순(회계팀)

휴대폰보조배터리
김유섭(아로마틱생산1과) • 이상수(탈황3과) • 박동희(안전대응팀) • 손진석(기계3과 손현국 사우 가족)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그 직원은 '곤조'가 있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
그 직원은 '고집'이 있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곤조'는 집요한 성질을 일컫는 일본어로 우리말 '고집'으로 순화해 사용합니다.

02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 잘 하세요.
→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채비(준비)' 잘 하세요.

'단도리'는 일을 진행하는 순서나 방법, 절차, 준비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채비·단속·마무리 등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합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쓰-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